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골목상권 웃었다’

‘소상공인 아카데미’ 성료 종합 대책 본격 추진
3대 전략·14개 추진과제 실천…지역경제 활성화

“광산구 소상공인 아카데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가게 운영에 응용했더니 3~4월에 비해 6~7월 매출이 절반 이상 올랐어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원룸촌에 2월 닭요리집 ‘게미식당’을 연 박동수 대표는 요즘 일할 맛이 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매출이 오르고 자신을 이해·응원해주는 든든한 동기들이 생겨서다.
박 대표의 일할 맛은 지난 5·7월 진행된 ‘광산구 소상공인 아카데미’ 참가에서 비

롯했다. 책 ‘한국형 장사의 신’으로 유명한 김유진 외식업컨설턴트는 아카데미에서 박 대표를 비롯한 30명의 자영업자들에게 장사비법을 실무 위주로 전했다.
강의를 들은 박 대표는 처음으로 소셜 서비스네트워크(SNS)에 계정을 만들고 음식·위생·조리법 등 가게 홍보에 들어갔다. 아카데미 동기들과는 SNS 친구를 맺고 품앗이로 서로의 가게를 알리기 시작했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 메뉴와 후식, 경제적인 점심음식도 추가했다. 여기

에 손님 사소한 말과 행동도 새기기 시작하자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광산구와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는 지난 달 세무·노무 상담, 8월 메뉴 개발 컨설팅을 제공해 박 대표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이렇듯 광산구는 가게 맞춤형 홍보·경영 컨설팅, SNS 홍보 마케팅 교육 등으로 아카데미 수료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광산구의 지원에 골목상권도 화답했다. 아카데미 수료자들은 품앗이 홍보를

넘어 SNS 단체 이야기방을 만들어 서로의 상황을 공유·지지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자영업의 위기’를 자치단체의 뒷받침과 공동체 교류로 맞서나가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 아카데미는 광산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에 따른 교육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민선 7기 취임과 함께 ‘일·사람·돈이 물리는 경제도시’를 표방, ‘골목상권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전체 사업체 수

의 82%에 달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31% 가량이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를 살리는 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으로 삼은 것이다.
광산구는 이를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으로 구체화했다. 종합계획은 ‘찾고 싶고, 오고 싶은 골목상권 인프라 조성’ 등을 목표로 ‘골목상권 브랜드화’, ‘민·관 파트너십 구축’, ‘내실 있는 맞춤형 지원’을 3대 전략으로 세우고 14개 추진과제를 실천하는 내용이다.

골목상권 브랜드화를 위해 현재 광산구는 ‘골목상권 자산 발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콘텐츠 발굴 사업’과 ‘우리 동네 골목상권 알리기 프로젝트’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동 16개 동장을 ‘상인회 키우미’로 지정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 골목상권 상황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게 할 계획이다.
/광산=고훈석기자

광산경찰, ‘학폭’ 근절 홍보활동



광주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14일 “여름방학을 맞아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연계 등 선도·보호 활동을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광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의 주요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상가·공원 등 학교 밖으로 이동함에 따라 맞춤형 치안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매주 2회 하남 메가박스 주변 등 비행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아웃리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광산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순찰 활동 및 유관기관·SNS 활용으로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한편, 청소년 안전망 연계 및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유해환경 개선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광산=고훈석기자



첨단2동 자원봉사캠프, 초중고 학생 응급처치 교육

광주시 광산구 첨단2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유유자)는 최근 광산소방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중고 학생 50명이 참가 가운데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광산구 제공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 피해 지원도 절실”

區 ‘日수출규제 대응 지원반’ 지역기업 실태조사
피해유형 세분화 향후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

“일본의 발주가 끊겨 대략 10억원의 매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 연 매출의 절반 수준이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피해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농기계 부

품 제조업체 A사의 B대표는 광산구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반’의 실태조사 방문에 이렇게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일본 부품을 수입해 만든 금형기계를 다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진곡산단 C사 D대표도 “일본이 금형기계를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 입 모두 타격이 예상되고 일본 수입처에서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 기업에 금형을 발주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을 비롯해 광산구의 실태조사에 응한 지역기업 대표들의 하소연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는 7월 이전부터 지역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 부품 수입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기업에는 대체재 확보 방

안 상담, 정부 금융지원 내용 안내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지역 수출 입 기업 모두가 직 간접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실태조사로 드러났다”며 “광산구는 기업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이달 초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기업 2천1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현장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반’을 구성하고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산=고훈석기자

순환·공생 ‘먹거리 생명학교’ 개강

내달 9일까지 매주 월요일 릴레이 강연

광주시 광산구가 최근 ‘순환과 공생의 광산구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구청에서 ‘광산 먹거리 생명학교’를 개강했다. 첫 강의를 시작으로 9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이어지는 이번 생명학교는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장·공공급식 가능성, 광산 먹거리 공동체 조성 등을 모색하는 자리다.
센터는 2013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학생 건강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의 성과를 일궈왔다.
이날 생명학교 첫 강의에 나선 건국대 윤병선 교수는 상생 먹거리 분야 활동가와 광주시민 30여명과 ‘지속 가능한 농·농촌 먹거리와 푸드플랜’에 대해 이야기했다.

생명학교는 오는 19일 농산물유통공사 김규태 본부장의 ‘투·트랙 농정과 푸드플랜 추진 전략’, 26일 나주로컬푸드센터 홍형석 센터장의 ‘푸드플랜 추진체계와 민관 거버넌스-나주시 사례’, 9월2일 지역파트너플러스본부 나영식 본부장의 ‘완주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사례와 교훈’, 9월 9일 민관 전문가 활동가의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향해야 할 과제와 해결책 토론회’로 이어진다.
구 관계자는 “생명학교가 지역푸드 플랫폼 수립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민선 7기 광산구 공약인 광산 먹거리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고훈석기자

광산구보건소, 금연아파트에 현판 전달



광주시 광산구보건소는 지난 13일 수완동 수안채리치 아파트에서 입주민대표,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아파트의 신청으로 보건소에서 지정한다. 세대 1/2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수안채리치 아

파트에서 광산구는 6개월간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광산구에는 14개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며 “주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아파트가 금연에 동참하길 바라고 흡연자들도 광산구의 이동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해 건강생활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고훈석기자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으로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